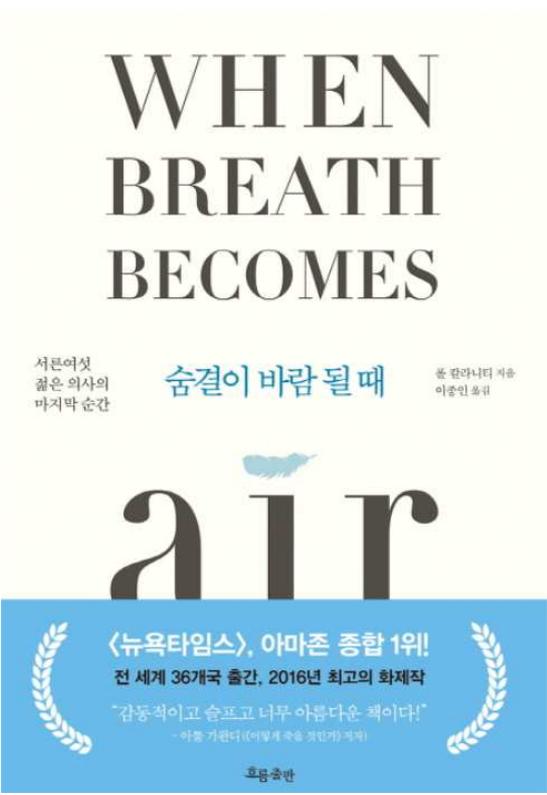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북보기(BOOK-보기)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17년 5월 31일(수요일) / 장 소 : 도서관 카페 & 1층 휴게실							
참석자 명단	학번	20140000	이름	정00	학번		이름	
	학번	20160001	이름	이00	학번		이름	
	학번	20160002	이름	최00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 토의 내용 및 사진 첨부							
	 <p>5월 31일, <숨결이 바람될 때 :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폴 칼라티니)>를 읽고 북보기팀의 4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p> <p>Q1. 목표를 향해 나아가던 중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풀처럼 구애받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나요?</p> <p>이00 : 풀처럼 죽음 선고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주변의 가족들과 그 외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생을 이어갈 것 같다. 죽음과 맞서며 목표에 이루겠다는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의 더 마음이 아플 것이다.</p> <p>최00 : 저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건강에만 신경 쓰며 인생의 마지막을 위한 행복한 기억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감기라면 풀처럼 노력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을 나타내기엔 목표</p>							

를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정00 : 나에게 죽음까지의 2년이란 시간이 남아있다면...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을 위한 삶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었지만, 사정상 미뤄왔던 일들을 할 것 같다. 그렇지만 그때엔 이미 몸이 많이 아파서 의지가 있어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역시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주변사람들을 위해서 2년이란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풀이 대단하게 느껴진다.

Q2. 풀처럼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노력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이00 :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변에서 봤던 흔히 말하는 '진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일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가치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모습이 '진상' 혹은 악역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여러 번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막상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자기의 입장을 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중이다.

최00 : 대학교에 들어와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며 다이어리를 채워나갑니다.

별 것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적어내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스스로에게 마음이 들지 않았던 모습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 있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 쓰기 귀찮아서 내적 갈등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꾸준히 1년 반 쯤 쓰고 있습니다.

정00 : 내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생각해봤다. 나는 '정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한다.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도덕시간에 '가치관 경매'라는 것에서 정의에 100만원을 올린 경험도 있을 정도로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 아주 사소하게는 빨간불에 신호등 건너지 않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학교 앞은 신호등이 없어 타이밍을 맞춰 건너야 하는데 나에게겐 너무 어렵다. 아직 내 가치관인 정의를 위해서 이런 행동까지 해봤다하는 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으니, 내 스스로의 정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계속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Q3. 에마가 풀에게 한 말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00 :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불행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일 수 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개개인에 따라 만족감이 달라진다. 자기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남한테 또한 불만족

스러운 것은 아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얽매여 내 행복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최00 :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살아가는데 제일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복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생각이 들고, 매일 매일이 힘들고 지치는 과정 속에 사소한 행복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이 저는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00 : 결국은 '나'라고 생각한다. 마이웨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나'. 예전에는 내가 중요하단 생각을 못해봤는데, 조금씩 내 인생에서는 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좀 더 힘들거나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선택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의사도 전달하고 있다. 작은 변화지만,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얻게 되었다. 건강도 마찬가지로 내가 건강해야 남들도 챙길 수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타인도 한 번 더 돌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내 주위에도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독후감 및 후기 >

이00 : 풀의 어머니는 교육이 어려운 도시의 환경에서 풀에게 책을 읽게 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에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으로 풀이 가치관과 꿈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다. 풀의 어머니처럼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갈피를 못 잡고 공부도 하지 않고 놀기만 했다. 그러다 2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담임 선생님은 부족한 내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담임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관심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고 좀 더 나은 학교 생활도 할 수 있었다. 대단한 결과를 불러 온 것처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때 담임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 했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 하고 방황했을 지도 모른다. 풀의 어머니와 나의 담임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00 : 의사와 죽음 뭔가 모순적인 구조인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의사와 죽음을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았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까지 함께 확인하면서 나는 나한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나 되돌아보게 되었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풀의 모습을 보며 고집스러움과 그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었다.

정00 :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던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가지라는 책이 떠올랐다. 의사가 저자이고 환자들의 죽음을 보며 내용을 집필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지만, <숨결이 바람될 때 : 서른 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는 의사도 죽음을 2년 앞둔 시점에서 펜을 들어 더욱 슬프게 다가왔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이국종교수님을 추천의 글에서 만나 반가웠다. 나의 서른 여섯은 남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2년이란 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떨까,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무엇일까. 등을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하게 만드는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폴의 인생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대해 고민하고,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사진)

< 북보기 5월 31일 도서관 1층 휴게실에서 4차 모임 >

<북클럽을 마치며>

이00 : 책을 읽는 동안 인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니까 인물이 하는 행동에 대해 그 인물의 성격이나 입장과 연결 지어 생각하니 이해가 잘 되었다. 내 성격이었다면, 내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등의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서 흥미로웠다. 서로 다른 분야의 책을 인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읽어서 색달랐다.

최00 : 대학교에 들어와 전공시험에 치여서 책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학년이 되어 북클럽이라는 기회로 책을 많이 접하게 되어서 책과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책과 가까워지면서 도서관과 가까워졌고, 도서관에서 자습을 하게 되는 등 제 스스로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조원들과 토론하며 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털어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00 : 동기들과 함께 했던 북클럽의 좋은 경험이 있어서, 후배들과 함께 두 번째 북클럽을 참여했다. 다 같이 집행부를 하고 있어서, 만나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 좋았다. 책도 성실히 잘 읽어오고, 질문을 준비해올 때도 한 두개씩 준비해오자고 했는데도 더 준비해오는 적극적인 모습이 예뻐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4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나에게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막막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북클럽을 통해서, 책의 인물에서 본받을 점과 나에게겐 부족한 점,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나는 어떤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2017년 5월 31일

참가자대표 : 정00